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3. No. 1 (2026) pp.053~069

중국어 조동사의 양태 중의성 연구
-‘应该’를 중심으로-

다이야난
(부산대학교)

Dai, Yanan. 2026. A Study on Modal Ambiguity Constructions in Chinese.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3*(1), 53-6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应该’ (yīnggāi) construction, which exhibits significant modal ambiguity. The paper distinguishes between the root modality interpretation, expressing the subject's obligation, and the epistemic modality interpretation, reflecting the speaker's conjecture, to examine their distinct grammatical matte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syntactic hierarchi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s a root modal, ‘应该’ is merged below the TP (Tense Phrase) level; consequently, it can combine with inflectional affixes, be modified by degree adverbs, and remains subject to strict word-order constraints. In contrast, as an epistemic modal, ‘应该’ is merged at a higher position—above the TP or below the CP (Complementizer Phrase)—resulting in restricted combination with affixes and a lack of modification by modal adverb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应该’ has undergone a process of grammaticalization, evolving from a less grammaticalized auxiliary verb into a subjective grammatical marker.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semantic correspondence between Chinese and Korean modal expressions, revealing that ‘应该’ as an obligatory (deontic) modal corresponds to the Korean construction ‘-어야 하다’, while its epistemic counterpart corresponds to ‘-을 것 같다’.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syntactic hierarchy in resolving modal ambiguity and provides theoretical insights into the contrastive linguistics of Chinese and Korean.

Key Words: Modality, Deontic Modality, Epistemic Modality, Modal Ambiguity, Grammaticalization

1. 서론

양태 표현이 중의적인 의미해석을 나타내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이며, 본 논의는 중국어의 양태 중의성 표현을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와 대응하는 한국어 양태 표현을 밝히고자 한다.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Coates, 1983; Lyons, 1977; Palmer, 1986, 2001; 김지은, 1998; 박재연, 2004; 임동훈, 2003, 2008 등). 양태는 크게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근원 양태(root modality)[1]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인식 양태는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표시하고, 근원 양태는 행위를 실행한 동작주의 의무, 허락, 능력과 관련이 있다(Butler, 2003). 그러나 한 양태 표현은 인식 양태를 실현하기도 하고 근원 양태를 실현하기도 하는데 아래 영어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ㄱ. Everybody must have got stoned. (인식 양태 해석)
ㄴ. Everybody must get stoned. (근원 양태 해석)

위 (1ㄱ)에서 'must'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 인식 양태 해석을 실현할 수 있으며, (1ㄴ)에서 'must'는 주어의 의무를 나타낸 근원 양태 해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의성 해석을 갖는 양태 표현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2) ㄱ. 발이 이제 나아서 내일 산에 오를 수 있다.
(근원 양태 해석)
ㄴ. 태풍이 이제 떠났으니 내일 산에 오를 수 있다.
(인식 양태 해석)

(3) ㄱ. 张三脚刚好，明天能上山。 (근원 양태 해석)
ㄴ. 台风刚走，明天能上山了。 (인식 양태 해석)

---

1) 근원 양태(root modality)는 인식 양태와 상대한 양태이다. 근원 양태의 하위 분류는 동적 양태만 인정한 경우(Sweetser, 1990), 동적 양태와 의무 양태를 포함한 경우(Coates, 1983)가 있다. 또한 Palmer(2001)는 동적 양태와 의무 양태를 사건 양태(event modality)로 명명하였다.

위 (2ㄱ)과 (3ㄱ)은 주어의 능력을 나타낸 근원 양태 해석과 (2ㄴ)과 (3ㄴ)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 인식 양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위 예문은 문맥에 따라 양태의 중의성을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 없이 어떤 양태 의미를 실현하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의성 특성을 가진 양태 구문은 문법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 吕叔湘(1979: 41)에서 가능성과 필요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부사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반면, 원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일반 동사와 가깝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어 조동사는 일반적인 동사에서 출발하여 조동사로 연쇄적으로 문법화 현상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应该'는 중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법화 정도가 덜한 경우와 더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문은 한국어와 완전히 대응하는 표현이 없어서 해석에 다소 혼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어 조동사 중에서 양태 중의성 특성을 가지는 '应该' 구문을 대상으로 그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의성이 문법화 정도의 차이로 인해 통사 계층 구조상에서 서로 다른 층위에 위치함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통사・의미적 층위 차이가 한국어 양태 표현과의 대조 분석에서 어떠한 '의미적 대응 관계'로 실현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두 언어 간의 의미적 대응 양상을 체계화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두며, 구체적인 통사 제약적 대조 분석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이론적 배경

생성문법 과점에서 양태의 중의성을 실현한 경우를 다루는 학자는 Picallo (1990); Bybee 외(1994); Rizzi(1997); Cinque(1999); Butler(2003); Hacquard(2010); 蔡维天(2010); 陆志军・石定栩(2021); 박소영(2022) 등이 있다.

Picallo(1990)는 스페인어의 'deure'와 'poder'를 분석하였다. 가령 'poder'는 인식 양태 의 해석과 근원 양태의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반면에, 'deure'는 오직 인식 양태 해석만 갖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poder'는 IP의 지시어에 나타낼 때 명제에 대한 인식 양태를 실현하며, VP의 부가어 위치에 나타날 경우 주어에게 부가어 논항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Bybee 외(1994)는 양태의

발달 과정이 “일반 동사 > 동작주 지향적 양태 > 인식적 양태”의 경로를 따른다고 지적하며, 동작주 지향적 양태와 인식적 양태의 문법화 정도에 따라 통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Cinque(1999)는 양태를 기능 범주로 간주하여 서법, 양태, 시제, 상 등 기능 범주의 보편적인 계층 구조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4) $Mood_{speech\ act}$ > $Mood_{evaluative}$ > $Mood_{evidential}$ > $Mod_{epistemic}$ > T(Past) > T(Future) > $Mood_{irrealis}$ > $Aspect_{habitual}$ > T(Anterior)> $Aspect_{perfect}$ > $Aspect_{retrospective}$ > $Aspect_{durative}$ > $Aspect_{progressive}$ > $Aspect_{prospective}$/Mod_{root} > Voice > $Aspect_{celerative}$ > $Aspect_{completive}$ > $Aspect(semel)_{repetitive}$ > $Aspect_{iterative}$ > V

위 (4)에서 화행을 나타내는 굴절소가 문장의 최상위에 결합하고. 다음으로 평가(evaluative), 증거성(evaluative),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굴절 요소가 위치하며, 그 뒤 시제가 이어진다. 시제 다음은 상, 그리고 근원 양태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따라서 “인식 양태> 시제> 상> 근원 양태” 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굴절소의 계층 관계는 문장의 어순에도 반영하기도 한다.

(5) ㄱ. 민자는 떠났-더-군-요!
ㄴ. 他昨天写完-了一封信。
‘그가 어제 편지 한 통을 다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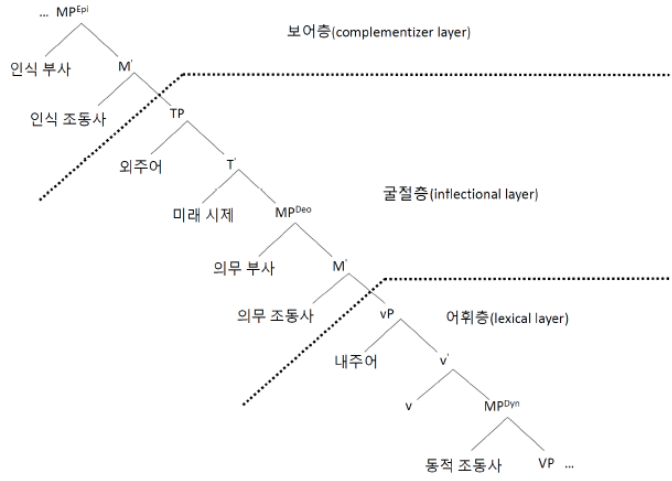
Cinque(1999)는 (5ㄱ)에서 ‘-았-’은 과거 시제(past tense), ‘-더-’는 증거성 표지(evidential marker), ‘-군-’은 화자의 평가(evaluative)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요’는 공손한 표현으로 분석하였다. (5ㄴ)의 중국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료상(completive)을 나타내는 ‘完’과 완료형(perfect aspect)을 나타내는 ‘了’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2.2. 선행 연구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자.

蔡维天(2010)과 陆志军・石定栩(2021)는 중국어에서 양태 중의성을 가진 표현을 주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蔡维天(2010)은 Rizzi(1997)와 Cinque(1999)

의 기능 범주 계층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어 양태 표현의 계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그림 1] 蔡维天(2010) 중국어 양태 통사 구조

위 그림을 보면, 그는 인식 양태가 보어구(complementizer layer)에 실현되며 화자 중심(speaker-oriented)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식 양태가 명제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전체 문장을 논리적 범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무 양태는 굴절구(inflectional layer)내에서 시제소구(TP) 하위, vP 위에 실현되며, 사건 주어 중심(subject-oriented)으로 나타난다. 동적 양태는 어휘구(lexical layer)에 실현되어, 주어와 의미역 관계(thematic relation)를 유지하면서 개체의 능력과 희망을 표현한다. 따라서 동적 양태는 내주어(inmer subject) 밑에 위치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박소영(2022)는 한국어에서 양태 중의성을 가진 '-을 수 있다' 구문의 통사 구조와 부정극어 인허 현상을 논의하였다. 그는 '-을 수 있다' 구문을 하나의 양태소로 간주하여, 시제소구 하위에 나타나는 근원 양태 해석과, 시제소구 상위에 나타나는 인식 양태 해석으로 분석하였다. 즉, 시제구 하위에 실현되는 근원 양태는 주어 논항에 특정한 의미 자질 제약을 요구하며, 이는 도출 과정에서 주어 논항과 근원 양태 Mod 핵의 자질 점검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주어와 목적어의 NPI는 어순 변경을 통하여 TP 밖 인식 양태의 부정에 의하여 인허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양태의 계층 구조는 중의성을 가진 양태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의 계층 구조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태 표현을 대조 연구한 논의는 거의 없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굴절소의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어 중의성 구문 '应该'을 분석하고, 이와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밝히고자 한다.

3. '应该'의 통사적・의미적 특성

3.1. 양태 조동사의 특성

이제 중국어 중의성을 가진 양태 표현의 통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杨黎黎(2015)은 중국어에서 중의성을 가진 양태 표현을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6) 该: 의무 양태, 인식 양태
会: 동적 양태, 인식 양태
能: 동적 양태, 의무 양태, 인식 양태
应该: 의무 양태, 인식 양태
可以: 동적 양태, 의무 양태
要: 의무 양태, 인식 양태

본 연구는 이 여섯 가지 조동사 중 '应该' 구문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양태 중의성이 문법화 단계에 따라 통사・의미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가령 '会, 能, 可以'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주로 '-을 수 있다' 구문이며, 이 역시 추측(인식)과 능력(동적)의 중의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要'는 한국어의 '-을 것이다'와 대등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 반면, '应该'는 근원 양태(의무)로 해석될 때와 인식 양태(추측)로 해석될 때 서로 다른 한국어 구문과 대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두 언어 간의 번역 및 대조 분석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应该' 구문에 초

점을 맞추어 통사적・의미적 층위별 한국어 대응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태 중의성 구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중국어 양태 구문의 특성부터 살펴보겠다. 중국어 양태 구문은 일반적으로 조동사 혹은 양태 조동사로 불러 왔다. 조동사의 통사적 특성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양태 조동사는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한다.
'能吃饭。(밥을 먹을 수 있다)'
ㄴ. 양태 조동사는 문맥에 따라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의문문의 응답에서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A: 能吃饭吗？(밥 먹을 수 있어?)
B: 能。(먹을 수 있어.)
ㄷ. 양태 조동사는 일반 동사와 달리 중첩이 불가능하고, 양태 부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 *能能, 很能说。)
ㄹ. 동작성 시태표지 '了, 着, 过'와 결합하여 동작의 완료, 지속, 경험을 나타낼 수 없으며,
(예: 他能了画画。)
ㅁ. 양태 조동사는 명사와 직접 결합하여 목적어를 형성할 수 없으며
(예: *能棋)
ㅂ. 부정문에서는 일반적으로 '不' 혹은 '没'과 결합하여 부정 양태를 표현한다. (예: 不能去。(갈 수 없다))
ㅅ. 양태 조동사는 피동문 '被~' 구조와 결합할 수 없다.
(예: *他被能画画了。)
ㅇ. 양태 조동사는 의문을 형성할 때 A-not-A 구조를 통해 정반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예: 能不能吃饭?)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 양태 조동사는 전형적인 동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점차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조동사가 지닌 기존의 어휘적 의미가 탈색(bleaching)되면서 문법적 표지로 전환되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양태 조동사가 동일한 문법화 양상이나 정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应该' 구문을 분석함으로써, 조동사 간에 나타나는 문법화 특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2. '应该' 구문의 통사적・의미적 특성

중국어 '应该' 구문은 주어의 의무를 표현하는 근원 양태 해석과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인식 양태 해석을 모두 가지는 양태 중의성 특성이 있다.

(8) ㄱ. 太晚了 , 还应该早点儿。
ㄴ. 他昨天动身的 , 今天应该到了。(吕叔湘 1999: 623)

위 예문 (8ㄱ)은 '일찍해야 하다'는 의무를 표현하는 것이고, (8ㄴ)은 '아마 이미 도착했을 것 같다'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应该'은 근원 양태 해석과 인식 양태 해석을 실현하는 경우 각자의 통사적 특성이 다르다. 아래 예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ㄱ. 你应该好好学习。
ㄴ. 你应该。/你很应该好好学习。
ㄷ. 你不应该好好学习。
'열심히 공부해야 해.'

(10) ㄱ. 他现在应该在家。
ㄴ. *他应该。/*他现在很应该在家。
ㄷ. *他现在不应该在家[2]。
ㄹ. 应该他现在在家。
'그가 지금 집에 있을 것 같다.'

위 예문 (9)는 근원 양태로 실현되는 경우이며, 예문 (10)은 인식 양태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위 예문 (9)는 화자가 청자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근원 양태에 속하는 경우, (9ㄴ)처럼 후행하는 본용언을 생략할 수 있고, 양태 부사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9ㄷ)처럼 부정어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 양태로 실현되는 예문 (10)에는 화자는 그가 집에 있는 사전을 추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양태에 속하는 경우 (10ㄴ)처럼 후행하는 내포문

2) '추측'의 인식 양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부정어 '不'와 결합할 수 없다. 물론, 근원 양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아래 4장에서 이런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

을 생략할 수 없고, 양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9ㄷ)처럼 부정어와 결합할 수도 없다. 그러나, (10ㄹ)과 같이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은 문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예문 (10)은 문맥에 따라 근원 양태 해석과 인식 양태 해석을 모두 지니게 된 중의성 특성도 보인다. 아래 예문을 제시할 수 있다.

(11) ㄱ. 他现在应该在家的 , 因为孩子发烧了。
'아이가 열이 나니까 그는 지금 집에 있어야 해요.'
ㄴ. 他现在应该在家了 , 灯都亮着呢。
'불이 다 켜져 있네요. 지금 집에 있나 봐요.'

(11ㄱ)은 논문에서 언급된 의무 양태로 해석되는 '应该'에 해당한다. 이 문장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는 기성 사실은 주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만 한다'는 의무적 상태를 형성한다. 이때 문말의 '的'는 어기를 강화하여, 기준 시간(현재)에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11ㄴ)의 '应该'은 인식 양태에 해당한다. 화자가 특정 상황(예: '차가 집에 없음' 또는 '불이 켜져 있음')을 근거로,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하여 그로 인해 형성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경우다. 여기서 '了'는 전형적인 문말 어미 '了'로서, '그가 집에 들어온 상태'가 발화 시점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불이 켜져 있는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화자의 추측을 의미한다.

또한, (11)의 중의성 특성은 아래와 같은 '是...的' 초점 구문을 통하여 그들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12) ㄱ. 他是应该在家的。
ㄴ. 他应该是在家的。

(12ㄱ)과 같이 '是'가 '应该' 앞에 위치할 경우, '应该'는 의무 양태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반면, (12ㄴ)에서 초점 표지는 의무 의미의 '应该' 뒤에 나타날 수 없으며, 이때의 '应该'는 오직 인식 양태로만 해석된다.

이러한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는 徐晶凝(2007)이 제시한 중국어 양태 부사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양태 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갖는다.

(13) ㄱ. 초점 표지(‘是’) 앞에만 나타날 수 있다.
ㄴ. 정도 부사(‘很’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ㄷ. 부정어(‘不’ 등)와 직접 결합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양태 부사 ‘好像’과 인식 양태 ‘应该’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 제약이 발견된다.

(14) ㄱ. 好像他去上班了。
ㄴ. *是好像他去上班了。/ *很好像他去上班了。
ㄷ. *不好像他去上班了。
ㄹ. 好像是去上班了

(15) ㄱ. 应该已经去上班了。
ㄴ. *是应该已经去上班了。/ *很应该已经去上班了。
ㄷ. *不应该已经去上班了。
ㄹ. 应该是去上班了。

예문 (14)는 전형적인 양태 부사 ‘好像’의 특성을 보여준다. (14ㄴ)에서 알 수 있듯이 ‘好像’은 초점 표지인 ‘是’ 뒤에 올 수 없으며, 정도 부사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4ㄷ)과 같이 ‘不’를 통한 부정 역시 불가능하다. 그러나, 초점 표지는 ‘好像’ 뒤에 나타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는 양태 부사가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전체의 층위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문 (15)은 ‘已经(이미)’이라는 부사와 ‘了’이라는 시상표지가 결합하여 사건이 이미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문맥이다. 이 경우 ‘应该’는 반드시 인식 양태로만 해석된다. (15ㄴ)은 양태 부사의 특성과 일치하는데, 인식 양태 ‘应该’은 초점 표지인 ‘是’ 뒤에 위치하거나 정도 부사인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인식 양태 ‘应该’는 (15ㄷ)과 같이 부정어 ‘不’와 직접 결합할 수 없다. ‘不应该’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는 대개 의무 양태일 때뿐이다. 인식 양태로서 “그가 출근했을 리가 없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는 ‘应该不’의 어순을 취하거나 ‘不可能’ 등의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양태 부사 ‘好像’의 부정 제약(15ㄷ)과 같이한다. 또한 (15ㄹ)처럼 초점 표지 ‘是’은 ‘应该’ 뒤에 나타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인식 양태 '应该'는 높은 층위에 있는 양태 부사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추측 의미일 때 '应该是'과 같은 어순만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정도 수식과 직접 부정이 제한된다는 점은 인식 양태 '应该'가 문장 내의 술어를 수식하는 단계를 넘어 화자의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는 높은 층위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근원 양태 '应该'는 예문 (7)과 같은 조동사 특성과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应该'는 조동사로서 덜 문법화에서 더 문법화까지 문법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应该'의 두 가지 해석의 통사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동사 '应该'의 통사적・의미적 특성

	应该1	应该2
의미	주어의 의무	화자의 추측
양태	근원 양태	인식 양태
시상 표지	결합 불가	결합 불가
부정	결합 가능	결합 불가
정도 부사 수식	가능	불가
초점 구문 '是...的'	들어갈 수 있음	들어갈 수 없음
문장 위치	고정, 본용언 앞	자유로움, 문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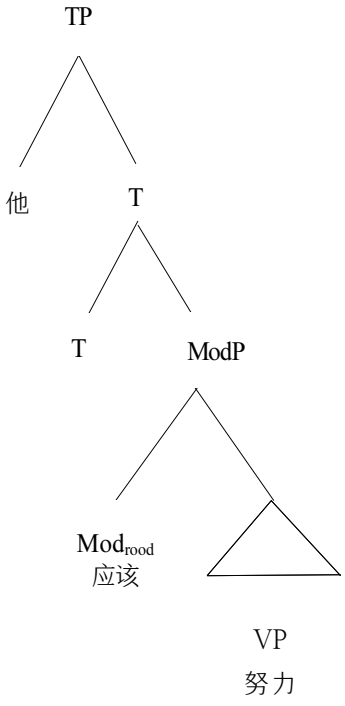
위 [표 1]에 따르면 근원 양태로서의 '应该'는 부정과 결합할 수 있고,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본용언 앞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는 부정과 결합할 수 없고,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문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래는 이와 같은 통사・의미적 특성을 계층 구조를 해석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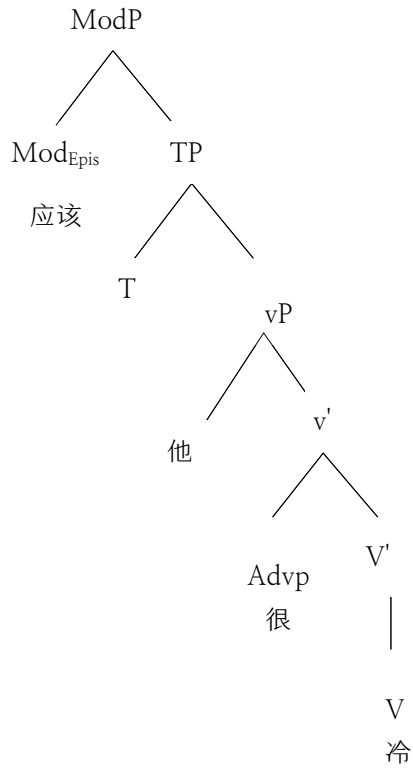
3.3. 통사 구조 해석

위 2장에 제시한 Cinque(1999)과 蔡维天(2010)의 계층 구조에 따르면 '应该'의 통사 구조는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다.

(16) ㄱ. 他应该努力。
ㄴ. 应该他很冷。



[그림 2] 근원 양태의 '应该'



[그림 3]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

예문 (16ㄱ)의 수형도 [그림 2]에 따르면, 근원 양태로 해석되는 '应该'는 통사 구조상 TP(Tense Phrase) 하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 층위의 '应该'는 굴절소(Inflectional morphemes)와 결합이 가능하며, 양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본동사와 인접한 서술어부(VP 내외)에 위치해야 하는 통사적 고정성을 지닌다.

반면, 예문 (16ㄴ)의 수형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는 TP 상위 CP 하위에 병합된다. 이처럼 높은 통사적 층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제나 상을 나타내는 굴절소와의 결합이 제한적이며, 부사의 수식을

직접 받기 어렵다. 또한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应该'가 보여주는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의 차이는 문법화의 정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의무 의미를 지닌 조동사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로 문법화됨에 따라, 문장 내 병합되는 통사적 위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3.4. '应该' 구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대응 관계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국어 양태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지연(2018)의 양태 문법 항목

양태 의미			양태 문법 항목
인식 양태	추측	막연	-(으)ㄴ지/는지/(으)ㄹ지/(으)ㄹ는지(도) 모르다, -(으)ㄹ까 보다/싶다/하다
		개연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터이다, -(으)ㄹ 법하다, (으)ㄹ걸,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가/는가/나/(으)려나 보다,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으)ㄹ 듯싶다/듯하다/성싶다
		확연	-(으)ㄴ/는/(으)ㄹ 게 틀림없다, -(으)ㅁ에 틀림없다, -(으)ㄹ 리(가) 없다, -(으)ㄹ 턱(이) 없다
	새로 앎		-(는)구나/구먼/군, -네, -더라
사건 양태	당위		-아야/어야/되다, -아야/어야 하다, -지 않으면 안 되다, -(으)면 안 되다, -아서는/어서는 안 되다, -아도/어도 되다
	의지		-겠-, (으)ㄹ 것이다, -(으)ㄹ 터이다, -(으)ㄹ까 보다/싶다/하다, -아야지/어야지, -(으)련다, -(으)ㄹ게, -(으)래
	의도		-(으)려고 하다/들다, -고자 하다, -자고 들다
	능력		-(으)ㄹ 수 있다/없다, -(으)ㄹ 줄 알다/모르다
	소망		-고 싶다, -았으면/었으면 싶다, -았으면/었으면 하다
평가 양태	유감		-(으)ㄹ걸, -지
	경계		-(으)ㄹ라

위 [표 2]에 따르면 한국어 양태 표현 중에서 양태 중의성을 지닌 구문은 '-겠-, -을 것이다, -을까 하다/싶다/보다' 구문만 있으며, 당위의 의미를 실현하는 구문은 추측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应该'는 주어의 의무와 화자의 추측을 모두 지니는 중의성 특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한국어에서 주어의 의무를 표현하는 양태 용언은 '-어야 하다' 구문을 중국어와 비교해 보겠다(김지은, 1998; 이지연, 2018).

(17) ㄱ. 출발해야 한다.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
ㄴ. 应该出发。/ 不应该出发。
ㄷ.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ㄹ. 应该要努力学习了。

예문 (17ㄱ)에 따르면, 한국어의 '-어야 하다'는 객관적인 의무나 당위를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应该'는 주어에게 부과된 '출발' 등의 의무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두 구문은 대응 관계를 지닌다. 한편, 예문 (17ㄷ)과 (17ㄹ)에 따르면, 한국어의 '-어야 하다'와 중국어의 '应该'가 모두 근원 양태로 실현될 경우, 두 언어는 공통적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인 '-겠-' 및 '要'와 결합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두 언어는 부정과의 결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의 경우, '-어야 하다'의 부정형은 반드시 본용언(VP)과 결합하여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어 '应该' 구문에서 부정어 '不'가 반드시 '应该' 앞에 위치하여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또한, 만약 부정어 '不'가 '应该' 뒤, 즉 본용언과 결합하게 되면 이는 더 이상 의무를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주관적인 추측의 의미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 '-어야 하다'는 의무의 의미만 존재하는 반면, 중국어 '应该'는 부정어의 통사적 병합 위치에 따라 근원 양태에서 인식 양태로 양태적 층위가 다른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는 명제에 대한 믿음[3] 정도를 보면 개연성 판

3) 박재연(2004)에서는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으로 구분하였다. 화자가 명제에 대해 '완전한 믿음(100%)'도 아니고, '절반 미

단으로 파악되어 왔다(杨黎黎, 2015).

(18) ㄱ. *应该肯定发烧了。
ㄴ. *틀림없이 열이 났을 것 같다.

예문 (18)에 따르면, 중국어의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와 한국어의 '-을 것 같다'는 모두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확실성 부사('肯定', '틀림없이')와 결합할 수 없다는 통사적 공통성을 보인다. 이는 두 표현이 명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개연성 확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나영(1999), 손혜옥(2016)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을 것 같다' 구문은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개연성(Probability) 판단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양태 범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는 한국어의 '-을 것 같다'와 긴밀한 대응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양태적 중의성을 지닌 중국어 '应该' 구문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应该'는 주어의 의무를 나타내는 근원 양태(Root Modality) 해석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해석을 지닌다.

첫째, 근원 양태로서의 '应该'는 TP 하위에 병합되므로, 시제 및 상을 나타내는 굴절소와 결합이 가능하고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용언 앞에 위치가 고정되는 통사적 제약을 보인다. 반면, 인식 양태로서의 '应该'는 TP 상위, 또는 CP 하위에 병합됨에 따라 굴절소와의 결합이 제한되고, 양태 부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며 문장 내 위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사적 층위의 차이를 통해 '应该'가 덜 문법화된 조동사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로 문법화 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둘째, 의미적 대응 관계 측면에서 의무 양태의 '应该'는 한국어의 '-어야 하다'와 대응하며, 인식 양태의 '应该'는 개연성 판단을 나타내는 '-을 것 같다'와 대응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다만, 본 연구가 두 언어 간의 의미적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여,

만의 낮은 믿음(<50%)'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판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통사 구조적 제약에 대한 미시적 대조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이는 '应该'의 층위별 한국어 대응 목록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한·중 통사적 대조 분석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두 구문의 통사 구조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지은. (1998).「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박소영. (2022). '-을 수 있다' 양태구문의 통사구조와 부정극어 인허.「생성문법연구」, 32권, 75-96.
박재연. (2004).「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손혜옥. (2016).「한국어 양태 범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지연. (2018).「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 유사 문법 항목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임동훈. (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한국어 의미학」, 12권, 127-153.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한국어 의미학」, 26권, 211-249.
전나영. (1999). '-나 보다 / -ㄹ 모양이다 / -ㄹ 것 같다 / -ㄹ 것이다 / -겠다'의 의미기능.「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4권, 169-198.

蔡维天. (2010). 谈汉语模态词其分布与诠释的对应关系.「中国语文」, 336, 208-221.
陆志军・石定栩. (2021). 义务情态句与认知情态句的句法分析.「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3, 20-27.
吕叔湘. (1979).「汉语语法分析问题」. 北京 : 商务印书馆.
吕叔湘. (1999).「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 : 商务印书馆.
徐晶凝. (2007).「现代汉语话语情态研究」. 北京 : 昆仑出版社.
杨黎黎. (2015).「汉语情态助动词的主观性和主观化」. 博士学位论文, 新加坡国立大学.

Butler, J. (2003). A minimalist treatment of modality. *Lingua, 113*(10), 967-996.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inque, G.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Hacquard, V. (2010). On the event relativity of modal auxiliari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8*(1), 79-114.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callo, M. C. (1990). Modal verbs in Catalan.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8*(2), 285-312.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Handbook in generative syntax* (pp. 281-337).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이야난
46281 부산 금정구 수림로 81번길 52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전화: 010-7677-3721
이메일: daiyanan96@gmail.com

논문접수: 2026년 3월 24일
수정완료: 2026년 5월 31일
게재확정: 2026년 6월 10일